


안보포커스

SECURITY FOCUS

발행일 2017년 11월 13일



中共黨 제19차 당대회,
시진핑 '1인 天下' 시대 선포
: 의미 및 정책 제언

【 차례 】

《요 지》

1. 中共黨 제19차 당대회 개요	1
2. 정치보고 주요 내용	2
3. 평가 : 시진핑 '1인 天下' 시대 선포	6
4. 정책적 제언	9

《요 지》

□ 中共黨 제19차 당대회 주요 내용

- 전면적 小康社會(중산층) 건설의 최종 실현
- 新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통한 中國夢 실현

□ 당대회 평가 및 한계

- 시진핑 '1인 천하' 선포의 성격
 - 黨憲 수정을 통한 마오쩌둥級 지도자로 격상
 - ⇒ 그러나, 내재된 사상의 추상성과 모호함, 내적 논리적 모순의 이론화 수준 등의 한계 노정
- 시진핑 절대권력 시대 기반 마련
 - '포스트 덩샤오핑' 시대 진입
 - ⇒ 서구 민주주의적 시각으로 보면, 1인 지배권력 강화 움직임으로 평가
-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면모의 대외전략 정책
 -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 목표를 완성해 21세기 중반에는 세계 최고수준의 중국군대라는 목표 달성
 - ⇒ 미국과의 무한경쟁 예고

□ 정책적 제언

- 시진핑 2기 지도부와의 전략적 소통을 통해 중국의 대외정책과 경제정책 등 파악 긴요
- 黨의 한·중 의원외교 강화 및 대화채널 확보 시급

1. 中共黨 제19차 당대회 개요

- 대회 기간 : 2017년 10월 18~24일, 19기 1중 전회(10.25)
 - 참가자 : 전국대표 2,280명, 특별초청 대표 74명 등 2,354명
중 病暇 등으로 16명이 불참, 개회식에는 2,388명 참석
 - 진행 : 지난 5년간에 대한 평가와 향후 5년간의 주요 정책 방향을 담은 ‘정치보고’ 진행, 이를 당 대회에서 채택
 - 이는 중국 공산당의 해당 시기에 대한 평가와 전망, 그리고 대책에 대한 인식을 담고 있는 보고로서의 의미가 있음
 - 대회명 : “전면적 소강사회(小康社會) 건설을 결정적으로 성공하고, 新時代 중국특색사회주의의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자”
 - 특이사항 : 새롭게 등장한 ‘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’가 핵심적인 단어라 할 수 있고, 내용에서는 대부분 이에 대한 개념 규정과 관련 설명이 주를 이룸
 - ‘전면적 소강사회’ 건설은 단기 목표로, ‘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’의 승리는 중기목표로 설정
- ※ 소강(샤오캉小康)사회 : 중산층, 중등생활 수준을 의미

2. 정치보고 주요 내용

○ 주요 내용(요약)

향후 5년 기조		"전면적 소강사회 최종 실현" "새로운 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승리와 중화민족의 중국몽(中國夢) 실현"	
경제	민생·환경	제도	· 의법치국 실천 심화 · 기구와 행정 체제 개혁 심화
· 질적·효율적 성장 우선시 · 공급 측면 구조 개혁 심화 · 혁신형 국가 건설 · 지역 균형 발전 및 농업 진흥 전략 실시 ·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보완	· 교육사업의 우선 발전 · 취업의 질 향상 및 소득 수준 향상 · 빈곤 퇴치 · 대기오염 등 환경 문제 해결 · 생태 관리 관리 체제 개혁	군	· 중국 특색의 강군의 길 ·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
		홍콩·대만	· 일국양제 견지 및 통일 추진

○ 시진핑 집권 1기에 대한 평가는 경제사회적 성과를 주요 근거로 비교적 성공적으로 자평

- 지난 5년간 GDP가 54조에서 80조 위안으로 세계 2위 경제 대국, 세계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30% 초과했다고 소개

○ 단기적으로, '전면적 소강사회 최종 실현'을 목표로 제시

- 중진국 수준인 1인당 GDP 10,000달러 수준을 전면적 소강사회의 기준으로 제시, 이 목표는 2020년까지 완성 제시

○ 중기적으로, '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승리'를 목표

- 연설 중 시(習)주석이 가장 강조한 단어로는 '新時代'이며, 新사상, 新목표, 新모순 등 언급

- 신시대 : ‘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’은 최소 2050년까지의 통치사상임을 천명

• 목표

- ① 국가 거버넌스 체계 및 능력의 현대화
- ② 依法治國의 전면적 추진으로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
- ③ 세계 일류 군대 건설
- ④ 新型국제관계를 추동하고 인류운명공동체 건설 추진
- ⑤ 당 건설과 정치 건설

• 실현방안

- ① 당의 모든 업무에 대한 영도
- ② 인민 중심 노선
- ③ 전면적인 개혁 심화
- ④ 新발전 이념
- ⑤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견지
- ⑥ 전면적인 의법치국
- ⑦ 사회주의 핵심 가치체계
- ⑧ 발전과정 중의 민생의 보장과 개선
- ⑨ 자연과의 조화로운 공생
- ⑩ 총체적 안보관
- ⑪ 당의 군대에 대한 절대 영도
- ⑫ 一國兩制와 조국통일
- ⑬ 인류운명공동체 건설
- ⑭ 전면적인 從嚴治黨[엄격한 당 관리]

- **신사상** : 중국이 지난 40여 년간 서방 자본주의 경제를 통해 G2의 위치까지 올라왔고, 이제 다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, 마르크스주의의 중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의미
- **신목표** : 2020~2035년을 1단계로 소강사회를 기반으로 15년간 사회주의 현대화를 달성, 2035~2050년을 2단계로 15년간 사회주의 현대화 기반 위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할 것이라 밝힘

시진핑의 중국 선진국·최강국 로드맵

기간	목표
~2020	- 소강사회 실현 - 군사력의 기계화, 정보화와 전략적 능력 측면에서 중대 진전 이룩. 군사이론, 조직형태, 군사인력, 무기장비 현대화
2020~2035	- 소강사회 기반 아래 사회주의 현대화 - 국방과 군대 현대화 기본 실현
2021	공산당 창당 100주년
2035~2050	- 현대화 기반 아래 사회주의 강국 건설 - 세계 일류 군대 건설
2049	신중국 수립 100주년
~2050	- 대외적으로 종합국력과 국제영향력 면에서 선두국가 실현

- **신모순** : 그동안 지속되어 왔던 지역간, 국민간 빈부격차의 모순을 축소하고 사회·자연·경제의 공동발전의 달성을 의도

○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전체구도

- 오위일체(五位一體) : 경제, 정치, 문화, 사회 그리고 생태문명 건설을 동시에 진행
- 4개전면(四個全面) : 소강사회 건설, 개혁심화, 의법치국, 엄격한 당
- 4개자신(四個自信) : 사회주의 길, 이론, 제도, 문화에 대한 자신감

○ 대외전략의 새로운 개념과 인식

- 국력 신장을 통한 국제적 영향력 확대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인식 표출
- 기존 신형‘대국’관계라는 개념이 사라지고, 신형‘국제’관계가 등장
- 신형국제관계는 상호존중, 공평정의, 협조공영으로 기존 내용을 종합
- 특히 국제분쟁의 대화를 통한 해결, 협상을 통한 갈등 해소, 전통과 非전통 안보 위협에 대한 종합적 대응을 강조

3. 평가 : 시진핑 '1인 天下' 시대 선포

○ 黨章 수정을 통한 마오쩌둥級 지도자로 격상

- “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”의 黨章(黨憲) 삽입
- 중요한 점은 기존의 중국공산당 당장에 들어가 있던 맑스·레닌주의, 마오쩌둥사상, 덩샤오핑이론, 장쩌민의 ‘3개 대표론’, 후진타오의 ‘과학적 발전관’ 등에 이어 ‘시진핑사상’이 당의 지도사상으로 자리잡게 된 것
- 이는 그 권위에 따라 階序적으로 주의-사상-이론-관(觀)의 순서로 표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, 시진핑은 19차 당대회를 통해 개혁개방의 총설계사로 추앙받던 덩샤오핑을 제치고 마오쩌둥급의 지도자로 격상된 것을 의미

⇒ 시진핑사상의 한계

- 역대 다른 최고지도자들의 예에 비춰봤을 때, 정교화 및 대중화 과정이 생략 내지 단축되었다는 점은 이 사상의 지속성과 논리성 측면에서 의구심 증폭시키기에 충분
- 전면적인 소강사회 → 기본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 →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목표로 설정하면서, 세분화를 통해 역사단계의 근본 변화에 대한 현실 및 이론적 부담감을 극복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어, 내용 측면에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

- 정치 및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사실상의 덩샤오핑 시대의 종결을 의미하는 ‘신시대’를 강조, 독자적인 리더십을 구축하려는 의도가 지나치게 앞섬으로써 사상의 논리성과 체계성을 약화시켰고 동시에 추상성이 과도하게 높아졌음
- 이처럼 지나친 추상성과 모호함, 내적 논리적 모순 등으로 시진핑사상의 이론화 수준은 그리 높지 않다는 평가
- 한편, 시진핑사상을 중국의 교과서에 새롭게 게재하여 시진핑 우상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, 이를 서구 민주주의 시각에서 보면 1인 지배권력의 강화뿐만 아니라 중국의 ‘새로운 황제’로 등극하는 느낌을 줄 수 있음

○ ‘격대지정¹⁾·집단지도체제’ 불문을 깨고 시진핑 절대권력 기반 마련

- 시진핑의 차기지도자로 예상되었던 후춘화(胡春華) 광둥성 서기와 천민얼(陳敏爾) 충칭시 서기 모두 상무위원 진입 실패
- 정치국 상무위원 7명 중 시진핑과 리커창을 제외한 나머지 5인이 모두 새로운 인물로 교체
- 세대교체와 함께 덩샤오핑 이후 자리잡은 계파간 타협의 산물인 상무위원들의 집단지도체제가 약화되고 시주석에 대한 권력집중 강화
- ‘포스트 덩샤오핑’ 시대 진입

1) 격대지정(隔代指定) : 현재 지도자는 다음 지도자를 정할 수 없고, 대신 한 代를 뛰어넘어 그다음 세대 지도자를 지정할 수 있다는 중국의 지도자 교체 원칙

⇒ 그럼에도, 10년 지배 전통을 깨고 계속 중국의 최고지도자로 남을 수도 있음을 암시

- 이전 시기 정치적 관례 중 자신에게 불리한 측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일정한 파괴를 진행
- 공산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 자파세력의 數를 집권 1기 보다 늘였다는 점
- 이를 통해 자신만의 정책 색깔을 더욱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적 기반을 마련
- 그럼에도, 개혁개방 시기 중국 엘리트정치의 기본적인 작동기제인 집단영도체제를 극복했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무리가 있음
- 또한 시진핑 이후 차기지도자의 불분명으로 향후 주식제 부활이 거론될 수 있으며, 이는 1인 지배체제의 영속화, 곧 독재체제로의 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

○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방향으로 대외전략 수정

- 시진핑은 19차 당대회에서 “중국이 평화로운 발전노선을 이어가고 새로운 국제관계 구축을 촉진하면서 인류운명 공동체를 건설할 것”
- 동시에 “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포기하는 행위는 결코 하지 않을 것이며, 2035년까지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 목표를 완성해 21세기 중반에는 중국군대가 세계 최고수준의 목표를 달성하게 될 것”임을 천명

⇒ 미국과의 무한경쟁 예고

- 덩샤오핑시대의 ‘韜光養晦(조용히 때를 기다리며 힘을 키운다)’
→ 장쩌민·후진타오시대의 ‘平和崛起’·‘有所作為(해야 할 일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뤄낸다)’ 병행전략 → 시진핑 집권 2기
‘奮發有為(떨쳐 일어나 해야 할 일을 한다)’로 변화
- 향후 미래는 중화민족의 ‘強漢盛唐(강력한 군사력 자랑하던 漢과 문화 융성을 자랑하던 唐)’ 시대의 재현을 선포

4. 정책적 제언

- 시진핑 2기 지도부와의 전략적 소통을 통해 중국의 대외정책과 경제정책 등 파악 필요
 - 이번 당대회는 북핵을 비롯한 한반도의 명운이 걸려있어 우리에게서 의미가 매우 크므로, 중국 차기지도부의 면면과 정치·경제시스템 등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
 - 民·官 1.5트랙 대화 및 한·중 국제학술회의 등을 통해 글로벌 G2로 부상한 중국의 정책 파악 및 대비
- 黨 차원의 한·중 의원외교 강화 및 대화채널 확보 시급
 - 시진핑 2기 新지도부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‘黨대黨’ 의원외교 활성화
 - 黨과 민간으로 구성된 ‘한·중 공공외교 특별위원회’ 설치, 가동



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8 한양빌딩 4층
TEL : 02. 3786. 3800 E-mail : ydi@ydiins.or.kr Website : www.ydi.or.kr